**연중 제28주일(2018년 10월 14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여러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욕심도 끝이 없어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세지를 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복음에서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와라!” 이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이걸 다 버리라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서야 어디 말이 통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가진 재물을 다 버리라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합니까? 가진 재산 다 팔아치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 오라니... 그냥 포기하고 떠납니다.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말도 안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다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만심이 아주 강하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특히, 부자들, 자식들이 아주 많고 유복한 가정, 그리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네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자만심이 가득했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계층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당시 지식인이라고 자부했던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회 통념을 깡그리 바꿔버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 관념으로 볼때 지배계층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었고, 아주 불순한 생각이었죠. 반면, 인생에 별 희망도 없이 살아오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문제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쫓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겁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해서, 욕심부리고, 자만심에 가득차서, 서로 나눌줄 모르는 인색한 마음을 꾸짖었던 겁니다. 내꺼 챙기기에 급급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꾸짖었던 거죠.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누어 쓸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나누어 쓰지 않으니까, 힘있는 사람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배터져 죽는 겁니다. 좀 나누면서 살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어라!” “가진 것 좀 나누어 써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버리자니 아까워 죽습니다. 남 주자니 아까워 미칩니다. 버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오늘 복음의 그 사람처럼 울상을 짓고, 슬퍼하면서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는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때 세례를 받고, 처음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벌었죠. 열심히 성당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었죠. 적금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 주택 마련을 위한 적금, 각종 투자 금융, 주식 등등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았었습니다. 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쯤 해서, 모아 두었던 거 다 헌금했습니다. 몇 천 만원... 몇 만불... 한 꺼번에 다 ... 좋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기분 무지 좋았습니다. 한 푼 두푼 모아서 큰 돈 만들었을때보다, 모아 두었던 돈 한꺼번에 다 헌금하니까 기분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가슴 뿌듯합니다. 명품 가방 하나, 아니면 명품 옷 한벌 샀다고 생각하시고, 성당에 한 만불 헌금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다 버리면, 거지되고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나요? 한 번 해보세요. 절대 거지 안되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질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나중에 절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재물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고 소심하게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 관대하고 대범하게, 기분 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신 행복의 길,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